



# 농장에서 질병을 예방한다는 것은?

2003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매스컴의 1면 머리기사를 조류독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베트남에서는 사람에게서도 사망자가 나오고 사망자수가 더 늘어나면서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조류독감이 발생하였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 발병한 조류독감은 베트남 등의 동남아에서 발생한 조류독감과는 다른 바이러스라고 하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오늘 TV에서 조류독감이 발병한 농장을 취재하는 것을 문득 들었는데 그 피해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더군요.

이제는 동물의 질병 하나가 사람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인기리에 방영되는 대장금에서도 우리가 흔히 먹는 무우, 배추가 감염되어 썩은 것을 먹은 사람들에게서 식중독이 발병한 것을 장금이가 치료해 주는 것이 나오더군요. 이제는 우리의 주요 먹거리인 가축, 더 나아가 채소, 과일들까지도 인간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권 회 수의사  
(주)엘비씨

그렇다면 이를 생산하는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생산에 임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 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 를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들은 고부가가치 상품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미 유기농 야채들은 고급백화점 매장에서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존 야채들에 비해 두 배 가까운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인기를 얻어서 비싸게 팔리고 있는 쌀들은 대부분 오리쌀, 유기농쌀, 특수 가공쌀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쌀들은 어떻게 경쟁하고 있을까요? 가격경쟁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양돈도 곧 이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기농법으로 생산한 돼지는 얼마에 팔 수 있을

까요? 결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사례로 보았을 때 상당히 고가에 팔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돼지를 생산하기 위해 좀더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1. 질병의 예방

우리는 오래전부터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현실은 어떤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너무도 많은 농장들이 질병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로 사업성을 점차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일까? 그리고 이런 상황이 안전한 돈육을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병을 예방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합니다. 예방이라는 것은 질병이 발병하기 전에 미리 억제하여 발병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농장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질병이 예방되었다면 농장에서는 어떤 질병도 발병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현재 농장에 어떤 질병이 오염되어 있는지 혹은 어떤 질병이 잠재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질병을 예방할 것인가? 또 농장에 병원체가 언제 감염되었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 수 없다면 어떻게 예방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 아주 기본적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질병으로부터 농장을 혹은 돼지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니터



- 농장에서 정상적으로 질병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혈액검사, 도축검사, 돼지의 임상증상 체크 등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링(질병 감시)이라 합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흔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혈액검사(Sero-Monitoring), 도축검사(Slaughter Monitoring), 돼지의 임상증상 체크입니다.

이 세 가지 기법만 가지고도 대부분의 질병에 대한 농장의 오염정도나 시기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농장에 적용 가능한 훌륭한 예방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중요하고 과학적이지만 간단한 부분을 무시한 채 어떻게 느낌만으로 예방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혈액검사는 백신을 판매하는 동물약품 업체라든가 혹은 사료회사 등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를 통한 진정한 예방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가축을 키워서 판매한다는 것이 공장에서 공산품을 만들듯이 기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변수와 위험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질병 역시 아주 중요한 위험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질병의 관리에 너무 소홀한 것이 아

닌가 싶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항생제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돈육의 품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질병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항생제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은 항생제를 사용하더라도 원리를 이해하고

비용을 줄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 2. 수의사의 역할

농장에서 정상적으로 질병 감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혈액검사, 도축검사, 돼지의 임상증상 체크 등의 활동을 말합니다. 혈액검사는 검사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혈액검사는 단순히 백신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결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농장을 판단해서는 많은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농장의 임상증상과 도축검사 결과를 통합해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도축검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숙달된 수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농장에서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수의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수의사와 협력하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불신의 벽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상호간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농장에서 적절한 예방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 수의사와 반드시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가 질병을 예방하고 또 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 3. 예방을 위한 노력

아직 유행성설사가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방심하기엔 이른 시기입니다. 오히려 발병

아직 유행성설사가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방심하기엔 이른 시기입니다. 오히려 발병하는  
정도가 더 심한 시기입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을 더욱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자랑과 사람에 의한 전파가 많습니다.  
겨울철 소독법에 기초하여 농장을 출입하는  
자랑과 사람에 대해서 철저히 소독을 실시하고,  
돈사입구에 발판소독조 등을 끌어 설치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운영하시고 적합한 소독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비용 대비 효율이 아주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농장에 적합한 예방책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의 발병으로 혹은 잘못된 예방법으로 무분별하게 항생제를 사용하게 된 것이고, 돈육의 항생제 잔류 문제가 심각하게 여길 정도로 된 것입니다. 항생제뿐만 아니라 소독제, 미생물제 등의 약제들이 정상적이고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많은

하는 정도가 더 심한 시기입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을 더욱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차량과 사람에 의한 전파가 많습니다. 겨울철 소독법에 기초하여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 철저히 소독을 실시하고, 돈사입구에 발판소독조 등을 필히 설치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운영하시고 적합한 소독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돼지의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는 옴도 5월 이전에 농장에서 박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옴은 농장에서 있으면 안되는 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농장의 생산성을 최소한 10%를 잡아먹는 옴은 농장에서 반드시 박멸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4~5 월이 옴을 박멸하기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다음 호에는 옴의 박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에서 점차 따뜻해지는 봄이 다가왔습니다. 이 시기에는, 다른 시기에도 중요하지만 공기의 품질이 우주 중요합니다. 공격적인 환기를 해주어 적절한 공기를 돼지에게 공급해 주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호흡기질병의 발생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건조하고 황사 등의 좋지 않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공기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각 농장마다 효과적이고 농장에 적합한 질병에 대한 예방방법을 강구하여 질병의 피해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예방이 곧 농장 수익을 증대시키는 일이고 더 나아가 안전한 돈육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돈

**WWW.PIG-MART.COM**

**양돈기자재의 모든 것  
2004년 3월 1일 피그마트가 시작합니다**

**도드람물류(주) TEL : (031)636-8931**